

김경진 교수의 섬기는 자 예수 이야기, 누가복음 이해하기

12. 누가복음 총정리

누가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오늘의 포인트

1. 왜 누가복음을 읽어야 하는가?
2. 어떻게 누가복음을 읽어야 하는가?
3. 누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4.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해석되는 누가복음 본문이 있다면?
5. 누가복음을 읽을 때 주의할 점

1. 왜 누가복음을 읽어야 하는가?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누가복음은 학계와 교계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여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인기를 누리왔던 복음서는 마태복음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담고 있고 또한 그 말씀들이 주제별로 질서 있게 잘 정리되어 소개되고 있는 마태복음은, 그 저자가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 하나인 마태이고 아울러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라는 부가적 특징과 맞물린 까닭에,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복음서로 자리잡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인기를 독차지하여 왔다. 이런 판도는 1901년 브레데(W. Wrede)가 마가복음을 본격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한 『메시아 비밀』¹⁾이란 책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달라지게 되었다. 즉 그 때까지 마태 혹은 누가복음의 요약 정도의 취급을 받아오던 마가복음은 이제 브레데의 저술로 인하여 그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계와 교계의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면서 수많은 연구물들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에 대한 관심은 뒷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금세기 중반 쯤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발전되어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연구가 성취된 후 비로소 누가복음과 그 후편인 사도행전에 대하여 학계와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쏟아지는 이런 관심의 경향을 감지하면서 1966년 반 우닉(van Unnik)은 누가-행전이 신학계의 ‘폭풍의 중심’(a storm center)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²⁾

이러한 세계적인 학계의 추세와 유사하게도, 한국의 교계 및 학계의 누가-행전에 대한 관심은 이제까지 매우 일천한 형편에 있어왔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과 그 후편인 사도행전은 한 저자 의원(醫員) 누가에 의해 기록된 책으로, 신약성경의 약 28%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별로 주목받아오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무시되거나 경시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책이다. 에네스트 르낭(Ernest Renan)이 표현한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³⁾인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보물 같은

1) Wilhelm Wrede, *The Messianic Secret*(London: James Clark, 1971).

2) W. C. van Unnik, “Luke-Acts, A Storm Center in Contemporary Scholarship”, in *Studies in Luke-Acts*, ed. by L. Keck & J. L. Martyn(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3) Ernest Renan, *Les Evangiles et la seconde generation Chrétienne*(Paris: Calman Levy, 1923), 283.

말씀 및 자료들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면, 사관에 방이 없어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과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목자들의 방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2:1-20), 세례 요한의 기적적인 출생(1:5-80), 그리고 여러 가지의 소중한 비유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10:25-37), 어리석은 부자 비유(12:13-21), 돌아온 탕자 비유(15:11-32), 불의한 청지기 비유(16:1-13), 부자와 나사로 비유(16:19-31), 무익한 종 비유(17:5-10), 불의한 재판관 비유(18:1-8), 이 밖에 복음 전도를 위하여 각 동네와 마을을 여행하셨던 주님과 그 일행을 자기들의 소유로 도왔던 요안나, 수산나 및 마리아를 비롯한 갈릴리 여인들에 관한 기사(8:1-3), 전도여행으로 피곤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을 따듯이 맞아 접대한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기사(10:38-42),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겠다고 선언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 관한 기사(19:1-10), 부활 후 엠마오 도상에서의 주님의 출현에 관한 기사(24:13-35) 등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보석 같은 특별자료들이다. 누가복음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러한 누가의 특별자료를 생략한 채 혹은 무시한 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올바르게 이해하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올바르게 전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저자 누가에게 크나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및 교훈과 더 나아가 신약성경 전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명료하게 설교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신약성경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누가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자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2. 어떻게 누가복음을 읽어야 하는가?

대별(大別)하여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여섯 가지 주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보편주의,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여성의 향상된 위치, 빈부 문제와 관련된 구제 명령, 그리고 기도와 성령에 대한 각별한 관심.

다른 복음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주제를 공통적으로 누가복음에서도 다루어 설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누가를 통하여 주신 말씀 및 자료는 다른 곳에서는 다룰 수 없으므로, 설교자들이 누가복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러한 누가의 강조점들이라고 생각된다.⁴⁾ 그러면 이런 강조점들을 통하여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1) 보편주의

보편주의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어온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선포하는 특수주의(particularism)에 치우치지 않고, 헬라인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만인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보편주의(universalism)를 또한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2:29-32; 3:4-6; 4:25-27; 14:23-24; 24:47).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이 호의적으

4)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누가가 그 복음서에서 이런 사실들을 강조한다고 말한다 하여, 없는 사실을 누가가 인위적으로 창작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복음서와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누가의 강조점은 저자 누가가 성경의 제일 저자(著者)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기록하였다는 증거인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누가의 강조 또는 관심'이라는 표현에 오해 없기를 바란다.

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역시 보편주의의 한 특징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9:52-56; 10:30-37; 17:11-19).

(2)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소외된 계층에 대한 누가의 관심의 예로서, 먼저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 시 방문한 목자들을 들 수 있다(2:8-20). 목자들은 남의 양을 훔치는 일이 많아 당시 사회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낙인찍혀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도 가질 수 없었던 하류 계층의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목자들에게 구주 그리스도의 탄생이 제일 먼저 선포되었고 바로 이들이 주님을 찾은 첫 번째 인물이란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천대받는 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밝히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다(참고. 1:51-53). 그 밖에 당대 사회에서 멸시받던 세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 또한 이런 특징의 한 예일 것이다 : 세리장 삭개오(19:1-10)와 세리 레위(5:27-30), 세례 요한의 설교의 대상이 되었던 세리들(3:12-13).

소외된 자들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부각되어 등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가난하고 불우(不遇)한 사람들, 즉 장애인, 맹인, 나병환자, 귀 먹은 사람, 저는 자들이다.⁵⁾ 당시 이런 불우한 자들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없는 까닭에 구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자들보다 교제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7:36-50; 10:38-42; 14:1-24), 주님은 항상 이와 같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에게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가졌다.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이들 불우한 사람들의 명단이 자주 반복되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누가가 이들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누가의 관심은 곧 하나님 자신의 관심인 것이다.

(3) 구제 명령

또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구제의 명령이다. 구제의 명령은 크게 두 범주로 소개되고 있다. 첫째는 마태복음의 병행구절과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강조점이고(마 6:19-21 // 눅 12:33-34; 마 23:25-26 // 눅 11:39-41), 둘째는 비유나 기사를 통하여 제시되는 강조점이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설교(3:10-11),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10:25-37), 만찬의 비유(14:12-24), 불의한 청지기 비유(16:1-13, 특히 9절), 부자와 나사로 비유(16:19-31), 부자 관원 기사(18:18-30, 특히 22절), 삭개오 기사(19:1-10, 특히 8절) 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명령만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명령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특징은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에서도 발견되는데, 초대교회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가짐을 통하여 교회 내에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으며, 이로 인해 교회 밖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날로 더욱 부흥하게 되었던 것이다(행 2:43-47; 4:32-35). 또한 자신이 손수 만든 겹옷과 속옷으로 가난한 과부를 구제한 다비다는, 비록 병들어 죽었으나 그녀에게 도움을 받은 과부들의 노력으로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5) 4:18; 7:22; 14:13, 21. 이 범주에는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어린이들도 포함된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기사, 그리고 7:12; 8:42; 9:38.

민게 되었다(행 9:36-43). 이런 사건들은 복음 전도의 효과적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구제임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4) 여성에 대한 관심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성에 대한 남다른 주님의 관심이다. 이런 까닭에 누가복음은 ‘여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여인들이 13명 정도 등장하고 있다 : 엘리사벳(1:5-56), 여선지자 안나(2:36-38), 사렙다의 과부(4:26), 나인 성 과부(7:11-17),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를 포함한 갈릴리 여인들(8:1-3), 마르다/마리아(10: 38-42), 18년 간 꼬부라져 펴지 못하던 여자(13:10-17),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15:8- 10), 멧돌을 가는 두 여자(17:35),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한 과부(18:2-5) 등등.

이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① 갈릴리 여인들: 첫 번째 경우는 열두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전도여행에 동참한 갈릴리 여인들이다(8:1-3). 이 사건이 시사하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남자 제자들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여자 제자들도⁶⁾ 동참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단순히 여행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 일행을 섬겼고, 그로 인해 가진 바 모든 것을 포기한 주님 일행이 일상적 필요에 대한 염려 없이 전도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이 여자들의 공로의 정도를 가능하게 만든다.

② 아브라함의 딸: 두 번째 경우는, 18년 동안을 귀신들려 않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자가 주님을 만나자 곧 치유 받아 펴게 되었다는 사건이다(13:10-17).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병자가 안식일에 고침 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 이 여자가 18년 동안을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였다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여자들의 사회적 위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 한 마디로 고대 세계에서 여자들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다. 남편의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남편에 의해 팔려가기도 하였고,⁸⁾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였기에 사람들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하였다.⁹⁾ 즉 허리를 펴고 살지 못하였고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여자가 치유 받아 곧 펴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 여자들은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남자들과 동등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이 기사에 담고 있다.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단어가 바로 13장 16절의 ‘아브라함의 딸’이란 표현이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씨’, ‘자손’이란 표현은 볼 수 있지만, 오직 이 곳 누가복음에서만 ‘아브라함의 딸’이란 표현을 만나게 된다. 따라서 이 기사는 단지 한 여자의 육체적 치유만이 관건(關鍵)이 아니라, 여자의 인격적, 사회적 회복의 의미

6) 주님을 따랐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들 갈릴리 여인들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김경진, 『누가신학의 제자도와 청지기도』(서울: 솔로몬, 1996), 146-147. 이런 맥락에서 누가는 복음서 기자 중 유일하게 여자에게 ‘여제자’(maqh, tria)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행 9:36).

7) 고대 세계에서 여자들의 사회적 위치에 대하여 좀 더 알고자 하면, 요아힘 에레미아스의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8), 450-472을 참조하라.

8) 고대 세계에서 여자가 남자의 재산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십계명 중 열 번째 계명에서도 확인된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출 20:17). 여기서 ‘네 이웃의 집’은 남자의 재산 전부를 가리키는데, 그의 재산 목록 제 일호가 바로 아내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대에 남자들이 여자들을 노예처럼 돈을 주고 사왔음을 보여준다.

9) 이런 까닭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산정할 때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를 아울러 담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가 누가복음에만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소외된 자로서의 여자에 대한 누가의 남다른 관심의 증거로서 간주되는 것이다.

③ 여자들의 등장 위치: 세 번째 경우는, 누가복음에서 여자들이 등장하는 위치에 대한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여자들은 홀로 등장하지 않고, 거의 항상 남자와 쌍을 이루며 나타나고 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1:5-25), 요셉과 마리아(1:26-38), 시므온과 안나(2:22-38), 나아만과 사렙다의 과부(4:25-27), 안식일에 고침 받은 남자와 안식일에 고침 받은 여자(6:6-11; 13:10-17),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남자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15:3-10), 잠자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혹은 버려둠을 당하는 두 남자와 멧돌을 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혹은 버려둠을 당하는 두 여자(17:34-35), 불의한 재판관과 그에 호소하는 과부(18:1-8). 사실 이들 기사와 사건들에서 남자만 등장해도 이야기는 전개될 수 있으나, 여자가 남자와 나란히 함께 등장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다.

이런 누가의 배열에 대해 플랜더(H. Flender)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이런 배열을 통해서 누가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함께 그리고 나란히 서야 할 존재임을, 그리고 그들은 명예와 은총에서 동등하며, 똑같은 은사를 받았고 똑같은 책임을 가진 존재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⁰⁾

(5) 기도와 성령에 대한 강조

① 기도: 기도의 특징에 관하여,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주님의 기도 장면이 더욱 많이 등장함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으며, 열두 사도를 선택하기 전 철야로 기도하였고, 기도하시러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으며,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남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이런 특징은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에서도 계속되어,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은 오순절 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그 후 중요한 시기와 사건 때마다, 스승 예수님의 모범을 좇아, 기도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것을 알게 된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의 발전을 소개함에 있어서 기도를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로써 누가 공동체를 비롯하여 후대 교회가 진지하게 본받아야 할 신앙생활의 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② 성령: 기도와 함께 누가복음에서 또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세례 때 성령의 충만을 입으신 후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와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눅 1:35; 3:22; 4:1, 14, 18; cf. 10:21; 12:11-12). 누가가 성령의 역사를 중히 여겼던 결정적 증거는 11장 13절이다. 여기서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마태의 ‘좋은 것’ 대신 ‘성령’을 소개하고 있다. 요컨대 누가에게 있어서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이란 뜻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의 성령에 대한 이런 강조는 후편인 사도행전에서 더욱 확대되어, 복음 증거의 실제적 원동력으로 성령께서 활동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성령은 기도할 때 강림하는 것으로 소개됨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얻게 되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을 아울러 깨닫게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기도와 성령에 대한 강조와 같은 영적인 측

10) H Flender, *St. Luke: Theologian of Redemptive History*(London: SCM, 1967), 10. cf. 마크 포웰, 배용덕 역, 『누가복음 신학』(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129-130.

면을 발견하며, 아울러 소외된 자들에 대한 강조와 같은 사회적 측면도 발견하게 된다. 즉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가 또한 같은 비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누가복음에서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한 채 이상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소개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는 곧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정확하게 일치함으로 우리의 깨달음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눅 10:27).

3. 누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교훈을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과 연결 지어 말한다면, 기도와 성령의 강조를 통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로 한 채, 무릇 모든 성도들은 주위의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철저히 무기력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아끼면서 돌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특히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주님은 또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다. 그러나 종종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어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 모자람이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소위 ‘고르반’식 사고를 갖고 있다. 주님은 분명히 이런 ‘고르반’식 사고를 책망하셨다(참조. 막 7:8-13).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도외시한 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과연 주님은 원하고 계실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눅 10:30-37)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한 삭개오의 선언(눅 19:8)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면서도 자기 집 문 앞의 거지 나사로에게 조금의 동정도 베풀지 않다가 마침내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진 부자를 통하여(눅 16:19-31)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당신의 지상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에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가난한 자, 눌린 자, 눈먼 자, 포로 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눅 4:18)이라고 표명한 메시야로서의 예수님의 선언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결국 소외된 이웃을 도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한쪽으로 치우쳐 하나님 말씀을 반쪽만 지키는 불구(不具)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도 함께 사랑하는,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다.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 결과요 열매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4.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해석되는 누가복음 본문이 있다면?

흔히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명명되어 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포함되는 까닭에 누가복음이 이런 별명으로 불리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복음을 오직 ‘가난한 자들만의 복음’으로 간주하는데 있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은 종종 그릇 해석되어 해방신학자들의 전유물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면 과연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만이 존재하는가?¹¹⁾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누가복음에는 부자들을 위한 복음도 아울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그 몇 가지 증거를 들기로 하겠다.

첫째로, 누가복음에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등장한다. 이 경고는 크게 세 범주로 구분된다. 즉 재물의 낭비, 집착, 축적에 대한 경고이다.

① 재물의 낭비: 먼저 재물의 낭비에 대한 경고로서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 수 있겠다(16:19-31). 앓은뱅이 거지가 문 앞에서 질병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날마다 사치스럽게 잔치를 차려 먹은 것은 분명 재물의 낭비임에 틀림없고, 이처럼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은”(16:25; 참고. 6:24) 그 부자는 사후(死後) 결국 음부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다. 이는 재물의 낭비에 대한 확실한 경고인 것이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은 구체적 허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의 낭비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유업으로 받은 재산을 허랑 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먹어 버렸다(15:13, 30). 재물을 낭비한 탕자는 돼지의 먹이가 되는 쥐엄 열매를 먹을 수도 없게 되어 굶어 죽게 되는 처지가 되고 만다. 이런 비참한 탕자의 모습을 재물을 낭비한 자들이 당하게 될 말로(末路)를 경고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장 13절에서 사용된 ‘허비’란 단어는 바로 이어지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다시 사용되고 있다(16:1). 여기서서는 주인의 재산을 책임진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다가 발각되어 해고의 위기를 맞게 되고 있다. 재물을 낭비할 때 돌아온 것은 직분을 빼앗겨 결국 구걸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다(16:3).

② 재물의 집착: 재물의 집착에 대하여는 우선 ‘부자청년 기사’(눅 18:18-30)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관원’으로 소개된 이 부자는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잘 준수하여왔던 종교적 인물이었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음으로 하여 예수님께 나아와 그 비결을 묻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말씀을 듣게 되자 ‘큰 부자 인고로’ 심히 근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비결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자멸의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다. ‘만찬의 비유’(눅 14:15-24)에서 우리는 처음 초대받은 부한 손님들이 이미 구매한 밭과 소 같은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잔치 참여를 거절하고 마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이생의 염려, 일락과 함께 재리(財利)는 씨앗의 기운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눅 8:14), 이 역시 재물에의 집착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③ 재물의 축적: 재물의 축적에 대하여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눅 12:13-21)를 언급할 수 있겠다. 누가만의 독특한 자료 중 하나인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소유가 넉넉한 데 인생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재물을 곡간에 쌓아두기를 즐기다가 마침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름 받아 비극을 맞게 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처럼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재물의 낭비, 집착, 축적에 대한 경고는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일까? 만일 누가 공동체 내에 부자들이 없었다면 이런 경고가 과연 의미 있는 것이었을까? 결과적으로 볼 때, 누가 공동체에는 이런 경고 혹은 권면을 받을만한 부자들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재물을 잘못 사용하여 실족할 수 있는 부자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이 누가복음 저작의 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

11)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나의 은사였던 에딘버러 대학교의 데이빗 밀랜드 박사는 매우 적절하게 해방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David L. Mealand, *Poverty and Expectation in the Gospels*(London: SPCK, 1980).

된다.

둘째로, 누가 공동체 내에 부자들이 존재하였다는 또 다른 증거는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구제의 명령이다. 예를 들어서 3:10-11; 10:25-37; 11:41; 12:33; 16:1-13(특히 9절); 16:19-31; 19:1-10(특히 8절)이 있다. 이 중에서 11장 41절과 12장 33절만이 마태복음과 병행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누가만의 독특한 자료이다. 여기서 특별히 12장 33절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의 대응구절로서, 교회에 드리는 헌금만이 아니라 구제 또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효과적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면 이런 구제의 명령을 받은만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결국 가진 자, 즉 재물 있는 부자들이 이 명령의 대상자이었을 것이다.

재물과 관련된 이상의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누가는 결코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 내의 부유한 자들을 위해서도 누가복음을 저술하였다는 것이다. 즉 부자들이 재물을 낭비하고 집착하며 축적함으로써, 또 재물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말미암아 16장의 부자처럼 음부에 떨어지거나 18장의 부자 관원처럼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기에 이들에게 재물의 바른 사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19장의 삭개오처럼 구원을 얻음에 이르도록 인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성격을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한정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진의(眞意)를 왜곡한 것이며, 결국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특수주의적 복음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를 위한 보편주의적 복음서인 것이다.

5. 누가복음을 읽을 때 주의할 점

누가복음을 포함하여 공관복음을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요점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답게 설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답게 설교해야 하며,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답게 설교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공관복음을 대할 때 어느 복음서에서 그 본문을 취하든 간에 별로 그 내용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공관복음 중 어디서 본문을 취하든 그 내용에 별반 차이가 없다. 마가복음을 택해도 누가복음 같고, 누가복음을 택해도 마태복음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설교한다면, 즉 공관복음을 각 복음서의 특징에 주목하지 않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설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으면서도 다른' 세 개의 복음서를 주신 이유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게 된다. 종합적이고 조화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공관복음 이해의 유일한 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태여 세 개의 같으면서도 다른 복음서를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단지 '정통 종합 복음' 하나만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개의 같으면서도 다른 복음서를 주셨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공관복음을 종합적으로 조화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물론 이런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다), 각 복음서의 두드러진 특징을 유념하며 이를 살려서 설교함이 필요할 줄로 생각한다. 각 복음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다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다름을 분명하게 설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같으면서도 다른 세 개 혹은 네 개의 복음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보다 풍성하게 복음서를 이해하며 그 결과 보다 윤택하게 복음서를 설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관복음 이해 및 해석의 일반 원리가 바로 누가복음에도 적용되어야 마땅하리라고 나는 믿는다. 누가복음을 누가복음답게 설교할 수 있을 때 비

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더하여 누가복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의도를 우리는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 오늘의 적용점

1.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권의 복음서가 아니라 네 권의 복음서를 주셨다. 그것은 네 권의 복음서를 적당히 섞어서 읽으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4명의 저자를 통하여 각기 다른 복음서를 저술하게 했으니, 우리는 각기 다른 복음서의 다양성에 귀 기울이며 누가복음을 읽어야 한다.
2.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6가지 독특한 주제에 주목하며 읽어야 한다. 보편주의,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구제, 여성에 대한 관심, 기도 및 성령에 대한 강조.
3. 6가지 주제 외에 우리가 학습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사회구원적 기독교론, 전인 구원적 선교신학, 두 종류의 제자도: 유랑제자와 정착제자, 정착제자의 또 다른 이름인 청지기와 청지기도.

